濟州島硏究 제15집(1998), pp.113~151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최병길** ·권귀숙*** ·강상덕****
김현돈***** ·한석지****** ·박찬식*******

요 약

이 연구는 제주섬 정체성 변화를 형성주의의 시각에서 학제간 연구방법에 의하여 다루어진 것으로, 제주섬의 정체성이 역사/정치, 사회, 문학, 철학, 관광의 영역에서 각각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며, 변화해 왔는지 역사적 흐름과 타 지역과의 상호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이면서 특수성을 갖는 정체성의 변화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제주섬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 타 지역과 비교되는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러한 정체성은 시대적 상황 및 각 분야마다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었을 것이다. 또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제주인의 문화적 이미지는 제주섬과 타자와의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순응 또는 저항의 행동을 통해 형성되어 왔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중앙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수탈과 착취만을 강요받았던 역사를 갖고 있는 제주섬은 생존을 위한 순응과 많은 민란을 통하여 생존을 위한 또 다른 모습의 저항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 이 논문은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의 학제간 연구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 제주대학교 섬연구소 연구위원
***** 제주대학교 철학과 부교수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
******* 제주대학교 사학과 강사

수 있었다. 역사적 경험과 이에 대한 의식 세계는 민요나 기타 문학작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문학작품은 그 시대의 삶이 반영된 것으로서 주어진 여건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은 바로 그 시대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주여성 특히 비천함과 강인함의 모순적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해녀의 역사와 의식세계를 통하여 제주섬의 정체성과 제주정신의 맥락을, 그리고 현대사에서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 과정에서 표출된 각종 개발반대운동이 사회운동으로의 확산 및 관광지로 성장 발전하면서 겪게되는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제주섬 정체성의 한 단면을 찾아볼 수 있었다.

I. 서 론

제주인은 제주 이외의 우리 나라의 다른 모든 지역을 '육지'라고 부른다. 제주가 아닌 지역을 모두 육지라고 부르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은 제주인이 스스로 다른 지역인들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인은 다른 지역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존재를 정의해 왔는가? 어떠한 문화적 특성을 다른 지역인의 특성과 차별된다고 인식해 왔으며, 자신들을 어떠한 상징물과 동일시해 왔는가? 또한 제주인은 다른 지역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왔으며, 거기에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해 왔는가? 나아가서 제주섬의 앞날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제주섬[1] 정체성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 정체성 연구는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해 가고 있는 이 때 지역 연구의 한 중요한 주제로 부상되고 있다. 또한 제주섬의 고유한 풍습이나 특성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새삼스럽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는 정체성 변화의 이해와 더불어 지역의 역사

1) 여기서 '제주도'라는 표현 대신에 '제주섬'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주도가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의 한 행정적인 지역으로 명명되기 이전의 역사까지 포함하여 정체성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문화 변천을 이해하는데도 필요한 한 작업이 될 것이다.

먼저 제주섬의 정체성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에서 빚어나는 특수한 성격에서 제주섬 정체성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즉 지리적 고립성, 토지의 협소성, 배타성과 더불어 바다를 향한 진취성과 연관된 제주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섬의 특징을 밝혀보려는 것이다(제주도 1993: 1209-1212). 섬이라는 조건으로 인한 제주인의 관습, 풍습, 무속, 친족 관계 등에 관심을 두고 일상 생활에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작업이다(김항원 1990; 이문웅 1997). 나아가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한 제주인의 정신 세계 또는 생활 철학을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연구도 진전되고 있다(김태옥 외 1979; 송성대 1996; 신행철 1997). 특히 '절약·검소', '상부상조' 등의 생활 태도에서부터[2] '해민정신'에 이르기까지 '제주정신'을 정체성과 연관시키는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3].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 하나는 제주 안에서 정

---

2) 제주섬 정체성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197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청 기관지인 『제주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1970년대 전반까지에도 국가의 정책에 호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였는데, 1977년에 처음으로 "제주도 전통문화의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제주다운 것'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제주인, 제주도 정신"(『제주도』, 1979)이라는 특집과 "제주도의 노래"(『제주도』, 1979)가 제정되어 정체성 담론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는 주로 제주인의 정체성을 '절약·검소' 등의 생활 태도에서 찾아보려는 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 후 제주인, 제주 정신에 관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면서 송성대(1996)의 '해민정신' 등이 등장하였고, 학술대회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되었다. '제주정신'과 제주섬 정체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리는 (조성윤, 1998)의 글을 참조 할 것.

3) 그러나 한편 '삼무정신', '해민정신' 등의 제주정신을 제주 정체성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논란 또한 활발하다(김현돈, 1997; 송성대 외, 1998). 특히 김현돈(1997)은 지금까지 언급된 제주정신론이 환경결정론적인 오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와 차별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돈은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빈번한 제주 정신 논의는 정체성의 성격 규정이라기 보다 정체성 위기감의 반영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주 밖에서 제주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방향이다. 대다수는 전자의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김항원 1990 등), 후자의 방향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은 데, 재일 교포 등 제주를 떠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제주의 전통성을 확인하고 있다(신행철 1997; 이문웅 1997).

제주섬 정체성 담론의 또 다른 시각은 지리적 결정론과 달리 제주섬의 정체성을 육지와의 상호관련 속에서 이해해 보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제주섬 정체성을 육지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지배/복종 등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그 형성과 변화를 이해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육지인/육지문화와의 관련을 통하여 제주인의 문화적 정체감을 밝혀보려는 시도와(유철인 1986), 4·3사건 등의 역사적 사건의 영향과 제주인의 정체성(김석준 1997), 그리고 관광 개발 등 제주 사회의 정책과 문화 정체성을 연관지어보는 작업 등이 진행되어 왔다(조성윤 1998).

이처럼 기존의 정체성 논의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 의하여 접근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관심은 '제주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하는 고정적인 정체성 발견에 집중되어 있다. 다르게 말하면, 제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기제에 의하여 재생산되며, 또 변화해가고 있는지 유동적인 정체성에 관한 관심은 부족한 것이다. 물론 후자의 시각에서 일부 접근하고는 있지만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역사, 문화, 사회구조적 분석 등 보다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역사적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정체성 변화를 이해해 보고자한다. 정체성의 형성, 유지,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는 그 사회의 사회구조와 상징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므로 한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학제간 접근방법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정체성이 여러 영역이 결합되어 있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학제간 연구에 의한 분석이 정체성의 다중적 성격을 더욱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역사, 정치, 여성, 문학, 철학, 관광 등에서 나타난 정체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제주섬 정체성 변화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정체성 개념 및 이론 틀을 소개한 후, 우선 제주 역사에서

제주인이 겪어 왔던 중요한 역사적/정치적 경험을 중심으로 육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식해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제주섬의 상징으로 알려져 온 해녀를 중심으로 제주 여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인의 의식 세계가 문학에 어떻게 반영되고 유지되어 왔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개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관광객의 관점에서 나타난 제주인의 인식세계의 변화를 추적해 봄으로써 제주섬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종합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공동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정체성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학문적인 접근 방법으로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보다는 다른 지역과의 지속적인 상호관련이라는 맥락을 바탕으로 단편적이기보다 역사/정치, 사회, 철학, 문학, 관광에 나타난 정체성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II. 정체성 개념 및 이론 틀

이 공동 연구에서 의미하는 정체성은 '개인 정체성'(personal identity)이 아니라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이며 '지역 정체성'(regional identity)이다. 개인 정체성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면, 집단 정체성은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집단에 대한 문화적 이미지이다(Mach 1993). 지역 정체성은 특정 지역을 경계로 그 지역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지역의 출신들이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지역인들은 누구인가?' 하는 집단 정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섬 정체성이란 제주인이 '그들은('타자') 누구인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상호 동일시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징적 인식 세계는 제주인이 타자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제주다운 것'을 만들어 가는 이데올로기적인 차원까지 포함한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연구는 '본질주의'의 시각이 아닌 '형성주의'의 시각에서 정체성 변화를 이해하려고 한다[4]. 본질주의의 시각에서 본다면 민족, 국가, 계급, 기타 집단 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역사, 문화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을 것으로 전제한다(Calhoun 1994). 반면 형성주의 입장에서는 집단 정체성이 사회, 문화적 컨텍스트에 따라 형성, 재생산, 변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질주의는 어떤 집단의 지속적인 고유한 성격을 말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집단과 집단간의 정체성 차이나, 정체성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질주의의 시각에서 제주섬 정체성을 본다면, '섬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갖고 있을 고유한 특성을 제주인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각은 제주인의 정체성이 일본 오끼나와 섬 주민의 정체성과 왜 다른지, 그리고 조선인의 정체성과 현대인의 정체성이 왜 다른지 그 차이와 변화를 말해 주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는 고정적인 제주섬 정체성보다는 유동적인 정체성 변화에 보다 관심을 두므로 형성주의의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먼저 지역 정체성의 형성 과정은 지역인들이 다른 지역인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동일성은 부각시키고,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작업에서 시작한다(Desch amps and Devos 1998). 일반적으로 자집단의 이미지로는 긍정적인 특성과 동일시하고, 타집단에게는 가장 부정적인 특성으로 이름지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분류화 작업(classification)을 통하여 타지역과의 관계를 규정지어 나가면서 자집단의 문화를 정의해 간다(Mach 1993). 지역 정체성은 지역인들이 구축해 나간 이러한 인식 세계로 볼 수 있

4)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배경은 개인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데카르트(Descartes) 등의 초기 근대 철학자들의 질문이 그 출발점이다(Goldstein and Rayner, 1994). 이들은 의심과 성찰을 통하여 내면의 "진정한 성격"(authentic character)을 발견하는 것이 곧 자아의 본질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본질주의'로 발전되는데, 루소(Rousseau)의 반론에 의하여 공격을 받는다. 루소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자아가 가능한 것인지에 반문하면서,. 자아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루소의 입장은 정체성 이론에서 '형성주의'의 기초를 이루었다.

는데, 외부의 관찰자의 눈에는 비합리적으로 비추어 질 수 있지만, 지역인들은 마치 사회 실재인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한다(Mach 1993).

제주섬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인식 세계에 대한 이해이다. 시대에 따라 타 집단과 제주섬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있는가' 하는 '내적 동일시(internal identification)'와 '우리가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가' 하는 '외적 동일시(external identification)'와 그 둘의 상호작용이 분석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두 집단간의 권력 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데, 권력 관계에 따라서 자집단의 이미지, 타 집단의 이미지와 타 집단에 의한 강요된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Mach 1987: 6-8).

한편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재형성되면서 유지해 나가려는 속성을 갖는다. 지역인들은 지역 내의 전통이나 문화를 유지하려는 '내부적 정책(inclusion politics)'과 '배타적 정책(exclusion politics)'을 동시에 사용한다. 내부적 정책이란 공동의 언어(사투리), 마을 내혼, 친족 관계, 공동의 상징을 통하여 집단 내부의 문화를 유지하려는 것이며, 배타적 정책은 타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등 타 집단 문화의 침입을 방어하려는 정책이다. 이 두 정책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하여 '우리 지역'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 강화되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스트레오 타입이 발생하거나 지역 이미지가 고착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된다고 믿는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상징화하려는 노력이 시도된다. 이러한 노력은 관광 등 타 집단과의 접촉이 빈번할 때 더욱 두드려지는데, 관광상품화 과정 등에서 정체성 재생산의 일환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최근 정체성 연구의 관심은 집단 정체성의 재생산과 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한 특성들이 '재창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개인 정체성과 달리 집단 정체성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필요성에서 전통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신비화하는 작업들이 정체성 재생산 과정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Goldstein and Rayner 1994). 우선 제주섬 등 큰 규모의 집단은 하나의 '상상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Anderson 1983)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같은 공간에서 살

고 있으면서 공동의 정신 세계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상 공동체에서 지역인들이 지난 역사 중에서 일정 부분을 "선택"하는 작위적인 과정을 통해 "전통의 재창조"(Hobsbawn 1983)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통의 재창조 또는 신화나 역사의 재구성은 현재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려는 시도이며, 정체성의 재생산 내지 변화이다. 특히 중앙집권적 정치, 경제, 문화의 진전과 더불어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이 약화되어 갈 때, 지역의 정체성 위기가 도래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한 방법으로 '전통의 재창조' 작업이 더욱 활발해지게 된다(Friedman 1992; Pitana 1998). 또한 재창조 과정에서 집단 정체성이 단편적이거나, 상호 모순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는 등 다중적인 성격을 띄기도 한다(Calhoun 1994).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역사, 여성, 문학, 관광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정체성의 재창조 과정과 다중적인 성격에 관심을 둘 것이다.

지역 정체성은 전통의 재창조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하여 재생산 또는 변화할 수 있고, 전체 사회의 경제 구조나 정치 체계의 변동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정근식 1997). 세계 경제 체계 내에서의 편입 정도, 국내 정치 경제 내에서의 분업 정도, 지역의 문화 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서 정체성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섬은 감귤산업화, 관광산업화 등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을 겪는 동안, 다른 지역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의식이 형성되어 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변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제주인의 정체성 정책(politics of identity)에 의한 정체성 변화도 이 연구에서 포함하려고 한다.

Ⅲ. 제주섬 정체성 변화의 다학문적 접근

1. 역사에 나타난 정체성

역사는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무엇을 이루어왔고, 그 성공과 좌절은 무엇

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등을 말하여 준다. 이러한 자기 발견으로서의 역사의 효용성과 기능은 남에 대한 공감의 기능과 직결되며, 그 공감은 자기가 속한 집단 공동체의 유산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한다. 바로 이 유산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지역의 역사이다. 지역의 역사는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겪은 경험이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가를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지역의 역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즉 나(우리)는 무엇인가를 현실감 있고, 직접 피부에 와 닿도록 깨닫게 해 준다(김은석 1998). 지역 정체성은 지역민들이 자각된 동일의식을 가질 때 형성된다고 보았을 때, 지역의 역사 탐구는 그 정체성을 찾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본절의 역사 특히 정치적 시각에서는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제주섬의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장기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추적하고자 한다. 제주섬 역사는 선사시대를 거쳐서 독립국으로서의 탐라사, 지방에서 변방으로 전락한 역사, 4·3으로 점철된 현대사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주인들은 섬을 둘러싼 외부 세력의 영향에 따라서 자율성과 타율성을 두루 경험하였다.

제주섬은 도서라는 특수성, 즉 도서가 갖는 지리적인 고립성이나 지역적인 한정성·협소성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제주섬만이 갖는 특이한 성격을 형성하였다. 또한 제주섬의 역사는 외세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수탈의 경험과 이에 대한 저항의식을 공유하여 왔다. 이러한 제주사회의 성격은 최근 관광개발의 가속화와 외부와의 교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제주섬의 정체성 변화 과정을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상고시대 제주사는 한반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동아시아 해양문화권의 범주 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고시대 제주섬은 한반도에 부속된 지방이 아니라, 한반도·중국·일본과 대등한 교역·외교관계를 맺었던 독립국이었다. 즉, 탐라국 시대의 제주섬은 해양 중에 위치한 절해고도가 아니라, 고대 동북아시아 해상교류의 거점 지역이었다. 탐라국 1천년 간 제주인의 정신세계는 해양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었다(고창석·박찬식 1998). 고대 제주인들은 해양을 통하여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과 주체적인 대

외관계를 맺어나갔다. 즉, 고대 제주인의 정체성은 진취적이고 자율적인 면을 띠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해양국가로서의 탐라국은 1천년의 수명을 다하고 고려 숙종 10년(1105)에 한반도의 중앙집권국가인 고려 왕조의 일개 지방으로 전락하였다. 고려시대 중앙왕조에 편입된 직후 제주인들은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여러 번에 걸친 민란을 일으켰다. 삼별초가 중앙정부와 몽골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켜 입도하자, 제주인들은 이들과 연합하여 고려조정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제주인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의식은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삼별초가 진압된 이후 수십 년간 제주섬은 몽골의 직할령이 되어 원제국의 해양 진출 전초기지, 나아가 임시수도로까지 여겨졌다(주채혁 1998). 고려 정부에 의해 가치 없는 지역으로 여겨지던 제주섬이 세계제국을 꿈꾸던 몽골에 의해 요충지역으로 여겨짐에 따라서, 제주인들은 다시 나름대로 자율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취적인 정체성을 유지시켜 갔던 것으로 보인다(김기협 1997).

조선 왕조는 고려시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함으로써 제주도가 중앙의 입장에서는 변방으로 취급되어졌다. 제주는 인물의 고향이 아닌 말의 산지로 더욱 알려지고, 중앙정치의 희생자들이 귀양오는 유배지로 인식되어 갔다. 제주인들의 대외관계는 한반도와의 단선적인 접촉에 그치게 되었다. 더욱이 17세기 인조대부터 내려진 출륙금지령이 19세기초까지 2백년 동안 지속됨으로써 제주인들은 철저하게 폐쇄적인 삶을 강요당하였다.

변방으로서 핍박을 받으면서 설움을 느꼈던 제주인들에게 바다는 격절의 공간이었고, 제주섬은 고립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변방의 시기 5백년 동안 제주인들에게는 특유의 생존을 위한 정체성이 이루어져 갔다. 외부에 대한 순응은 '수눌음'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적 노동방식, '조냥'으로 상징되는 내핍적 생활양식으로 집약됨으로써, 끈질기고 억척스럽고 강인한 기질이 제주인의 정체성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반면 조선왕조 말기에 제주인들은 민란을 통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발은 제주인의 저항 기질을 강화시켰고, 외부인들에게는 배타적 정체성으로 강하게 비쳐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시기 제주인들에게는 섬과 바다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잠재의식이 자리잡았다. 조선왕조 말기 여러 민란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별국(別國) 건설'의 지향은 변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도민들의 잠재의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5] 이러한 잠재의식은 제주인의 정체성을 직접 표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표출되는 정체성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식민지시대 한국의 역사는 타민족의 지배하에서 더욱 심하게 왜곡되었다. 이 시기 제주 사회는 한반도의 다른 지역 못지 않게 심한 식민지적 수탈과 착취, 민족 차별과 탄압을 받는 가운데 이전 시기보다 예속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제주인들 대부분이 빈궁과 기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의 탈출을 위하여 일본 등으로 나가 열악한 조건하에서 탄광이나 방직공장 등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1923년 제주도와 오사카 사이에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제주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도항하여 갔다.

이러한 핍박의 시기에 제주인들은 적극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1919년의 조천 만세시위운동 이후 제주섬의 민족해방운동은 사회주의 청년운동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1925년 '신인회' 결성을 시발로 30년대 중반 일제의 탄압으로 지하로 잠적할 때까지 도내 운동의 주류를 이루었다(박찬식 1996). 이 시기 최고 절정을 이루었던 운동은 잠녀들의 투쟁이었다(후지나가 다케시 1990). 이 투쟁에는 연인원 1만7천여 명이 참여하였고, 검거된 사람만도 100여 명에 이르는 제주도 최대의 민족해방투쟁이자, 한반도 최대의 여성운동·어민투쟁이었다(제주도 1996b). 그러나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사회운동세력은 지하로 잠적하고, 1940년대 전시체제하에서 제주인들은 징병·징용·강제 노역 등으로 사상 최고의 압박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5) 이러한 내면적인 별국 지향 의식은 민간신앙에서도 찾아진다. 즉, 탐라국 이래의 제주도 민간신앙의 대상이었던 대표적 신당인 광양당과 차귀당, 그리고 풍운뇌우제 등이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도민들에 의해 모셔졌다. 조선 숙종대 이형상 목사가 이들 민간 제사를 유교식으로 개혁하고자 하였지만, 광양당은 한라산제로 오히려 수용되었고, 풍운뇌우제는 잠시 폐지되었다가 도민들의 반발로 이형상 목사가 퇴임하자마자 다시 모셔졌다(조성윤 1997).

이렇듯이 일제치하 식민지시대에 제주인들의 항일의식은 육지부 다른 지역에 못지 않았고, 지역 엘리트들이 제주섬에 대한 자존의식을 상당하게 갖고 있었다. 제주인들은 제주섬 내에서 벗어나서 한반도·만주·중국·일본 등지에서 활발한 항일운동을 펼쳤다. 특히 일본 오사카에서의 제주인들의 항일운동은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8·15' 해방 직후 제주섬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미군정이라는 또 다른 외세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와 함께 반공이 중요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였다. 미군정하에 제주인은 5·10 단독선거 반대 등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항하였는데, 이러한 저항의식이 돌출한 사건이 1948년 4·3사건이다. 4·3을 통하여 제주도민들이 겪었던 수난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3 피해의 참혹상은 이후 제주인들에게 개인적이며 직접적인 경험과 기억을 통하여 유지되어 갔다. 4·3의 연장선상에 있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의 권위주의적 반공국가체제하에서 제주인들은 공산주의를 증오하는 의식과 함께 국가의 물리력에 대한 공포심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1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제주인은 4·3의 피해의식을 간직한 채 이러한 국가 이념, 체제에 서서히 순응하여 갔다. 1952년 있었던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 주민이 이승만에게 83%의 지지를 보냈던 것은 이를 입증한다. 이는 저항하는 제주인이라는 내적 동일시로부터 물리적 힘에 순응하는 제주인의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말해 준다.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1950년대를 지나 1960년대에 이르면 제주섬은 중앙정책에 의하여 감귤산업, 관광산업 등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제주는 항상 높은 여당 지지율을 보이는 등 체제순응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 시기 한반도의 종속적 산업화 과정이 각 계층간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크게 심화시켰던 것과는 달리, 제주섬에서는 2차산업의 미발달과 1차산업의 특화, 3차 관광산업의 발달로 대체적으로 균등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관광산업을 위주로 한 3차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중산층의 폭이 확대되어 가고, 반면 1차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적어져서 완만한 계층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그런 가운데 외

지 자본에 대한 도민들의 경계 심리는 더욱 상승되어 갔다. 5공시대의 권력형 축재자들의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토지 투기, 제주를 자유항으로 삼고자 했던 계획, 6공시대 대기업 재벌들의 제주도 개발 참여 등은 열악한 자본력을 가진 제주인들의 생존 기반을 침탈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1980년대 초 제주도 내에서는 계몽적인 차원에서 대학생들 사이에 사회과학 독서그룹이 활성화되었고, 마당극 등의 문화운동이 전개되어 반정부적이고 반외지자본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다. 1983년 제주대생들의 자유항 반대 시위는 그 시기 제주인들의 반발의식을 대변하였다. 이후 1987년의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제주도 내의 사회운동은 활성화되었다. 이후 탑동 공유수면매립 반대운동(조성윤 1992a), 송악산 군사기지설치 반대운동(조성윤 1992b) 등 각종 지역주민운동이 일어나서 제주인들의 사회의식이 이전에 비하여 매우 고양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제주 현대사의 최대 과제인 4·3의 해결을 위한 도민들의 주체적 노력이 경주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무소속 출마자들의 국회의원 당선이 이어져서 제주도는 여권의 경계 지역으로 주목되었다.

이는 표면상 보여왔던 권력순응적인 제주인의 모습에서부터 다시 외세에 저항하는 모습, 그것도 주체적인 태도로 사회운동을 벌여나가는 모습으로 전환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감귤산업의 위기, 개방화의 추세, IMF 체제의 도래 등 제주 사회가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면서 외지자본에 대한 저항의식이 감소되어 가고 있다.

이상에서 제주섬의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제주 역사의 정치적 요인, 특히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주인들은 고대 탐라국의 독립경험에서부터 비롯된 자율성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인의 자립적, 자강적 정체성으로 지속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11세기 이후 고려와 조선과 같은 중앙정치체제의 강력한 구심력에 이끌리면서 중앙에 대한 순응과 더불어 반발하는 사례도 빈발하였다. 중앙의 대리자인 지방관의 수탈 속에서도 순응의 정체성은 조냥과 수눌음으로 표출되었고, 반발의 정체성은 민란으로 표출되는 저항정신, 저항을 초월한 별국의식으로 승화되었다.

이러한 제주섬의 정체성은 4·3을 거치면서 무조건적인 순응과 반발로 양극화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공권력에 의한 엄청난 피해를 겪은 이후 제주

인들은 외부의 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1960년대 이후 국가독점자본 위주의 개발에 말없이 순응하여 갔다. 이런 가운데 제주인들은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 정서를 공유하여 갔다. 이러한 배타적 정체성은 특히 제주를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 제주인의 정체성으로 고착되기도 한다. 한편 순응과 반발의 의사를 표출시키는 것을 경계하는 기회주의적 성향도 상당히 보편화되어 갔다. 제주도 선거의 특성인 무소속 선호 경향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하겠다(김석준, 1997). 결국 4·3은 제주인의 정체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제주인의 정체성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외적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한 지역자율성의 증대, 주민참여의식의 증대, 정치적 의사표현의 확대 등 중앙의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인 개방화의 추세는 제주인들로 하여금 한반도와의 일방적 관계를 벗어난 새로운 대외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율성과 개방성의 증대는 잠재하였던 제주인들의 정체성을 표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21세기를 앞둔 제주인들은 정체성의 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다.

2. 제주여성의 정체성

제주 여성은 돌, 바람과 함께 제주섬을 다른 지역과 구별시키는 특별한 존재로 알려져 왔다. 동시에 제주 여성, 특히 해녀에 관한 이야기는 제주섬 전체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수탈과 고통의 해녀 역사는 곧 제주섬의 설움의 역사로 말해진다. 또한 해녀의 특성으로 말해지는 근면, 검소, 자립, 생명력은 오늘날 제주 여성, 나아가서 제주인의 정체성으로도 말해진다. 따라서 해녀 또는 제주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제주섬 정체성 변화를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문헌상 해녀가 어느 정도 소개되어지는 조선 사회에서 타자는 역사학적 접근에서처럼 중앙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중앙 조정과 제주섬

과의 관계는 '공납'의 관계에 있었음을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주섬은 조정에 강제적으로 생산물을 진상해야 하는 관계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조정에서 보낸 제주 목사나 사자는 해녀를[6] 과중한 공납에 시달리는 불쌍한 "갯가의 백성"(이형상 『속탐라록』, 1994: 378-379)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가장 공물을 많이 바쳐야 했던 해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피"하고 싶은 "관의 종"(이건 『제주풍토기』; 강대원, 1973: 34 재인용)으로 비춰어 진 것이다. 더욱이 남성 중심의 유교 문화에서 "남녀가 서로 어울려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이건(『제주풍토기』; 강대원 1989: 177 재인용)의 말처럼 해녀는 비천한 존재로 타자에게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집단과 다른 집단과의 권력 관계가 일방적일 때는 복종해야 하는 집단이 강요된 이미지를 받아들임을 고려할 때(Mach 1993: 8), 이 당시 해녀들 스스로도 천하다고 동일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동일시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천하게 본다"는 오늘날 해녀들의 대담에서 드러난다(안미정 1998).

해녀의 정체성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들어와서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는 제주섬이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됨에 따라 해녀는 현금 수익을 가져오는 직업 집단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총독부, 언론, 제주 유지 등의 타자들은 해녀를 제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잠수업자로 보고 있었고(후지나가 타게시: 1990 재인용), 해녀 스스로도 '물질'(해녀업)이 "귀먹은 돈", "눈 어두운 돈"[7]을 버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동시에 해녀들이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가련한"(동아일보 1920. 4. 22; 동아일보 1924. 4. 28) 존재로 자타가 강조하게 된다. 착취당하는 노동자로써 중앙 언론 등 외부에서 말하고 있고, 해녀들 스스로도 적어도 "···해조류를···상당한 값으로 팔지도 못(하는)"(동아일보 1924. 4. 28) 존재임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1932년 세화리 "제주해녀시위사건"이[8] 발생하는 동안 이러한 착취

---

6) 조선 사회에서는 해녀를 '잠녀' 또는 '잠수'라고 불렀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불리는 '해녀'라는 호칭과 통일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해녀'라고 표기했다.

7) 해녀 노래의 일부로서 이 노래의 전문과 기타 노래들은 (김영돈 1994)에 실려 있다.

당하는 해녀 대신 용감한 남성적인 이미지로 언론은 급격하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세인의 이목을 놀라게 하"거나(동아일보 1932. 5. 22), "노호하며 역습하"(조선일보 1932. 1. 24)거나, "호미와 비창을 휘두르고 만세로써 서로 호응하며...만뢰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듯한 함성을 지르며 노도격광의 기세로"(조선일보 1932. 1. 24) 항쟁하는 해녀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 사건 과정 동안 해녀들이 이러한 외부적 이미지와 어느 정도 일치되는 정체화 과정을 겪는지 남아 있는 자료로써는 알기 어렵다. 다만 그 시위에 참가했던 해녀들의 증언에 따르면[9], 상인들의 횡포에 "목숨을 내놓고 싸울 준비"(부춘화 1985)를 하는 등 상당한 저항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저항, 항쟁하는 해녀의 모습은 제주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4·3 사건 동안 특별히 강조되지 않는다. 미군정, 중앙 정부 등 새로운 권력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다중의 피해자로 말해진다[10]. 증언에 의하면, 여성들은 남성들이 피난 간 마을을 지키고, 어린 자식이나 노인을 보살피고, 죽은 가족의 시신을 찾아 거두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 더욱이 성폭력, '적'과의 전략결혼, 강요된 밀고로 인한 가족 붕괴 등으로 인해 말을 잃어버릴 정도의 피해자로 기억된다(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1996, 이하 4·3 위원회).

다중의 피해자로 말해졌던 여성들이 4·3 사건 이후에는 마을의 재건, 성비의 극심한 불균형 등으로 인해 '일하는 여성', '생활력이 강한 여성'으로 다시 부각되어 말해진다. 이미 밭농사 중심의 농업에서도 여성들의 노동이 중

---

8) 이 사건은 상인들의 횡포, 수탈, 그리고 어용으로 변질된 해녀조합 등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된 생존권 투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대학 박물관 1996)과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6)을 볼 것.

9)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기억을 물어 보는 증언은 현재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점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참고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4·3 사건과 관련된 증언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10) 앞절에서 4·3 사건을 계기로 제주 주민들은 피해의식, 순응, 배타성 등의 정체성 변화를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다.

심이었고,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젊은 남자들의 도일로 여성들의 노동이 가중되어 왔는데, 이제 생계를 거의 전담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친 것이다. 사건 이후 파괴된 마을을 재건할 때, 젊은 층(20-44세)의 성비가 무려 66.2 (1949년 인구조사, 이창기 1980: 46 재인용)까지 내려갔었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이 부양의 책임을 진 여성들"(4·3 위원회, 1996: 192),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4·3 위원회, 1996: 110)등의 증언이 말해 주듯이 일은 제주 여성의 정체성에서 더욱 떼어놓기 어려운 요소가 된 것이다.

제주 역사의 흐름과 함께 주로 수탈 당하는 존재로써 강요된 이미지를 받아들여야 했던 제주 여성이 1960년대 이후 지역 엘리트나 지역 당국에 의하여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어 말해지기 시작한다. "근면, 검소, 자립" 정신 등 당시 국가의 구호에 맞추어 "전세계적으로 본보기"인 근면성, "숙명적이고 무의식적 검소", "자력으로 늙도록 생계를 유지하는" 자립 정신이(강병찬 1977: 34-35) 제주 여성의 본질적인 자질로써 강조된다. 해녀 또한 "수출 산업의 역군"(강대원 1973: 70)으로써 재평가되기도 한다. 제주 여성 스스로도 이러한 이미지에 적극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음이 1970년대의 주요 잡지(『제주도』, 『월간 제주』)에서 엿볼 수 있다. 일하는 제주 여성, 생활력이 강한 여성, 근면·검소·자립적인 제주 여성상은 그 후 거듭 재생산되면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관광업, 매스컴, 교통 등의 발달로 제주 주민은 아마도 유사이래 가장 많은 타집단과 직·간접으로 만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제주 여성에 대한 타자들도 정부, 관광객, 지역 당국, 육지 여성 등 보다 다양해지고, 제주 여성들의 정체성도 보다 다중적이고 모순적으로 나타난다. 우선 지역 엘리트와 지역 당국은 제주섬의 고유한 특성이 약화되어 간다고 인식하면서 '전통의 재창조' 작업에 관심을 두는데 이 때 제주 여성, 특히 해녀의 이미지를 적극 재창조한다. 해녀는 제주섬의 뿌리이며 '이어도'의 꿈으로써(고영기 1995; 현기영 1989), "성실의 표상"(김영돈 1994)으로써, 그리고 무엇보다 저항, 항쟁 정신의 "성역"(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6)으로써 부각된다. 즉 해녀는 육지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고유한 문화 자산의 상징 또는 기호로써 일컬어진다. 이는 인도의 민족주의자들이 서양의 문물에 대항하는 정체성이 필요할 때 인도 여성을 인도 정신의 기호로 상정한

것과 유사하다(Catterjee 1989). 이러한 기호로써의 해녀상도 제주 여성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11] 또한 최근 정체성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조성윤 1998) '제주 정신'으로 확대되면서 제주인의 정체성으로 확산되어 말해지고 있다.

또 다른 해녀상은 여성주의 시각에서 형성된 것으로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해녀가 '동양의 아마조니언'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시작한다(조혜정 1988). 저항하는 해녀의 이미지와는 달리 평등한 해녀 공동체에서 자율적이고 낙천적인 기질을 지닌 해녀가 근면한 노동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말해진다. 이러한 관점은 "아기를 (보는)"(송성대 1996: 263) 남성이 평가 절하될 때, 남녀 관계를 "일찍 깨달아 실천한, 앞서 달려온...페미니스트"(송성대 1996: 287) 확대되어 말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해녀상도 오늘날 제주 여성의 인식 세계에서 다른 지역의 여성과 구별되는 차이로써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12].

따라서 제주 여성의 정체성은 다중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 해녀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자신들이 천하다고 믿고 있다. 제주의 역사에 비추어 버림받은 여성, "한의 대명사"(월간관광제주 1986년, 4-5월)로도 인식한다. 그러나 동시에 해녀들은 자신들을 "부지런하고 강인하다"고 말한다(안미정 1998). 제주 여성 스스로도 제주 여성하면 여전히 먼저 '해녀'가 떠오르고[13] '해녀'하면 강한 생활력, 근면성, 강한 정신으로 동일시하고 있다[14]. 육지 여성과 비교하여 '억세다', '상냥하지 못하다'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지만, '강한 여성'으로 자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지배적이다.

---

11) 체계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지역 엘리트 여성들과의 면담에 의하면, "우리 제주 여성들은 강하다" 등 정신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는 응답을 주로 들었다.

12) 해녀를 소재로 한 『꽃한송이 숨겨놓고』(한림화 1993) 등의 작품에서 이러한 면이 재현되고 있다.

13) 1995년 제주 해녀 수는 5,886명으로 15세 이상 여성 인구의 3.0%에 불과하다(제주도 수산과). 이는 제주 여성들에게도 해녀는 실제의 모습보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14) 1998년 9월 MBC 라디오 방송에서 제주 여성을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다양한 층의 제주 여성과의 면담에서 위와 같은 응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강한 제주 여성으로 자신을 보는 그들은 한편 어머니의 실제의 삶을 보면서 이러한 이미지와 갈등을 겪게 된다. 강한 여성의 이미지 뒤편에서 '고생하는 어머니', '희생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로 젊은 층의 여성들은 어머니의 그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결심한다[15]. 이 과정에서 제주 여성의 정체성은 모순을 보이기도 하는데 제주 여성을 다룬 최근 글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제주 여성 또는 해녀는 잠수, 농업, 가사노동 등 현실적으로 "삼중고"에 시달리는 "속죄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저력을 가진 불굴의 정신력 소유자로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월간관광제주 1985년 3월호, 1986년 4-5월). 이는 제주인이 역사적으로 타자와의 권력 관계에서 하위에 위치하면서 수탈에 대한 순응과 이에 대한 저항 정신 등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3. 문학작품에 표현된 정체성

문학은 특정 시대, 특정 계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 특히 해당지역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의식의 변화를 추적해 봄으로써 그 지역의 정체성은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문학작품 가운데서도 제주지역의 문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제주섬의 정체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즐겨 불렀던 민요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첫째, 민요가 섬사람의 정체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민요 외의 장르에는 문학을 대표할 만한 소설이나 시 등의 작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섬은 서민문학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요나 설화 등의 구비문학이 융성하였다. 구비문학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기록으로 전해 내

15) 이러한 대담 역시 위의 특집에서 나온 것인데, 젊은 여성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온 응답 중 하나이다. 같은 응답을 제주대학교 여학생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다.

려오는 민요는 창작 당시의 원형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승과정에서 변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의 민요는 다른 지방의 민요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지역성을 강하게 투영하고 있다. 제주 민요는 섬사람의 생활 감정이 여과 없이 스며들어 있는 서민층의 창작의 소산이기 때문에 민요를 통해서 민요가 불려진 당시의 서민들의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제주도 민요의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제주도는 민요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많은 민요가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요는 질과 양면에서 단연 압권이다. 양적인 면에서 "아홉 상자 반"이나 된다는 민요의 풍부함을 노래한 민요[16]가 있을 정도이다. 제주에 노동요가 많은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노동요를 통해 하층민들은 노동의 고역과 단조로움을 피하고 흥을 돋구어서 일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농업에 의존하고 살던 시절 제주인에게 노동은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생존의 수단이었다. 그들은 맨손으로 척박한 자연 환경을 이겨내야 했고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억척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노동요로 표출했던 것이다.

제주의 노동요 중에서도 대표적인 맷돌, 방아노래 가운데 하나인

바악바악 줄아지라
오눌 ᄌᆞ냑 ᄌᆞ베기 ᄒᆞ영
늴도 먹곡 모리도 먹곡
바악바악 줄아지라
호박 입 톨아근에
좀쏠 죽을 ᄒᆞ영 먹게

16) 김영돈, 1965. 『제주도 민요 연구』. 서울: 일조각. p. 5. 이여 ᄒᆞ믄 나 눈물 난다/ 말앙 가믄 놈이나 웃나/ 대로 한질 놀레로 가라/ 놀레 몰른 아기네덜아/ 나 신데래 베우레 오라/ 싀 술 적의 불르단 놀레/ 아홉 상지 반이여마는/ 반 상지만 더 배왕 가라. 민요는 전승과정에 있어서 채록자, 시연자, 지역 등에 따라 같은 민요라도 다르게 존재한다.

이 민요는 먹을 것이 귀했던 제주도의 옛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풍요의 땅이 아니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섬사람들은 돌이 많은 척박한 땅과 가뭄, 그리고 바람과 싸워야 했다. 그들은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았으며 자신의 운명이 타고날 때부터 미리 정해진 것이라는 '예정설'을 믿었던 것 같다.

나 전싱은 누룩의 전싱
누룩ᄀᆞ찌 쎅이멍 산다

이 민요에서 나타난 자신의 전생을 누룩에 비유한 메타포는 아무리 보아도 신선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누룩의 이미지는 보잘것없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누룩이 발효됨으로서 그 효용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쎅이멍 산다"를 외연적으로 해석하면 자조적으로 들리지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강한 의지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자신은 누룩같이 썩으면서 살고 있지만 썩음으로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강한 자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노래가 또 있다.

큰 부잰 하늘엣 부재
족은 부잰 오금엣 부재
오금엣 툭 오금엣 툭

여기서 첫 행과 둘째 행은 극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첫 행은 사람의 운명을 하늘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운명 지워진다는 예정설을 믿고 있다. 그러나 다음 행에서는 현실을 포기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없어도 오금을 쉴새없이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면 큰 부자는 될 수 없어도 보통 부자는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 같이 맷돌방아 노래에는 제주 섬사람들의 한탄, 자조, 체념이 담겨있으나 동시에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려는 의지가 역설적으로 나타나 있

다.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강인한 의지로 승화되었고 섬사람들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근면, 삼무정신, 수눌음정신, 주냥정신 등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철학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민요를 통해 나타난 제주인의 정체성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동시대의 제주문인들의 작품 그 중에서도 제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4·3사건을 다룬 시를 주로 고찰하였다. 제주인은 4·3 항쟁이라는 지울 수 없는 현대사의 질곡을 경험하였고 이 사건은 그들에게 "주검보다 무겁게 잠긴 캄캄한 역사의 빗장"(김순남 1998)으로 남아 있다. 4·3사건에서 수없이 많은 무고한 제주의 양민들이 참혹하게 학살되었고 이런 참상을 직접 목격했거나 간접적으로 듣고 보았던 후손들은 50년 통한의 세월을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4·3사건이 일어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언제까지나 비탄과 설움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만은 없는 일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슴에 꽂힌 "역사의 빗장"을 풀기 위해서는 과거를 값진 역사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문학 작품 속에 잘 나타나 있다.

화해와 용서와 평화와
공존의 눈짓으로 몸짓으로
4월이면 그대는 살아
우리 곁으로 온다
더 이상의 싸움은 부질없는 것임을
깨우치려는 듯 안타깝게 그것을 말하려는 듯
입 벙긋거리며 화평한 얼굴 속
검정 고무신 끌며 (김광렬 1998)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잘못이나 죄를 짓고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의 죄는 도덕적인 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인간도 하느님과 같은 너그러움과 포용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부질없는 싸움은 없어질 것이고 인간 사회에는 언제나 화해와 용서, 그리고 평화가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4·3과 같은 역사적 비극은 없으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이 가슴에 깊이 깊이 새겨진 한을 씻어내리 듯
영혼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네
하늘 마음이 되어 세상 가득 내리네
아아! 이제 4·3의 탄식은 다시 없으리 (현안식 1998)

그렇다고 과거를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는 과거다"하는 식의 자포자기도 아니다. 잘못은 용서하되 과거를 잊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야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며 미래이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살아남은 자는 살아남은 자들끼리
이승도 저승도 오도 가도 못하는
흐르는 넋들은 그런 넋들끼리
모두 모두 여기에 오십서
한숨이랑 저 산에 던져두고
눈물일랑 저 바다에 던져두고
한아름 들꽃으로 살아 여기에 오십서 (김수열 1998)

과거의 비극을 잊어서는 안되듯이, 과거 선조들의 강한 삶의 정신을 잊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맨손으로 흙을 일구었던 선조들의 모진 삶을 받들어 후손들도 "들꽃"같은 강한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시인의 충고처럼, 제주인들은 오늘날에도 조상들의 훌륭한 정신을 본받아 변함없는 섬사람 특유의 강인함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인용된 현대시를 통해서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제주인, 특히 지식인들의 의식 속에는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피해의식을 "화해와 용서"를 통해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제주인의 정체성을 민요와 시에 나타난 제주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알아보았다. 제주인의 정체성을 시대의 변천 과정을 통해, 더구나 문학

작품을 통해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과거 제주인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환경과 시대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이 현대에 와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냥정신으로 대변되는 과거 선조들의 정신이 물질적으로 궁핍한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면 물질적 풍요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그러한 정신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승되어 있는지는 의문시되는 일이다. 그러나, 민요와 시에 나타난 제주인의 정체성은 삶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변함없는 강인함을 간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아마도 이러한 태도는 현실 속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문학이 허구의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며, 특히 민요나 시는 응축된 형식 속에 현실 세계와 시대 정신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관광 및 관광개발 과정을 통해 드러난 정체성

지금까지 관광분야에서의 정체성 논의는 주로 관광지의 정체성에 대한 주제에 한정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체성을 논할 때 "관광지의 성격" 즉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정체성의 형성주의 관점에서 조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이 관광객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다른 관광지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은 관광지의 특성 즉 관광지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관광지가 성장·발전하면서 관광지는 변화를 거듭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노력 및 경제 사회·변화가 가져오는 관광지의 내부적 요인과 관광객의 욕구변화에 따른 외부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관광이라는 주제를 통해 제주지역 주민이 보여준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1960년대부터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차원에서 시작된 제주의 관광개발은 우리 나라의 급속한 산업화과정과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동안 제주관광 및 지역사회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19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목표는 국가자본축적에 있었다. 일제통치, 전쟁과 분단으로 피폐된 국가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시급했으며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를 노농중심의 공업부문으로 투입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쉽게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했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바로 자본이었다. 부존자원도 없고 국내 자본도 형성되지 않은 그 당시에 제주관광개발의 목적은 관광수입을 통해서 외환수입을 올리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었다.[17] 즉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자본이 필요했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는 일본과 가까운 지역으로서 국제적인 관광지로서의 성공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제주관광이 외국인관광객의 비중이 낮고 국내의 경제성장에 따라 종속적으로 발전된 점을 미루어볼 때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주도가 관광지로 발전하게된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관광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분업차원에서 지역특성이 고려된 정책적 결정에서 관광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다는 것이다. 관광산업이 정책산업으로 지정되고 시간을 두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이 모든 분야에서 계획적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급속하게 추진되어 왔던 것처럼 지역개발 역시 국가주도형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국가와 독점자본이 개발의 주체가 됨으로써 개발과정에 이들의 요구가 주로 반영되고 지역주민의 이해는 배제되는 경향이 컸다. 계획의 입안·시행·이익배분의 전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은 배제되었던 것이다"(이상철 1987).

지역개발에서 이 같은 방침은 결국 제주관광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강한 저항을 낳게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1988년부터 시

17) 관광개발은 경제적 혜택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는 외국관광객이 가져다주는 관광수입을 국내산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작된 탑동매립반대운동, 1988년의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운동, 1991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특별법 반대운동, 그리고 여러 마을에서 잇달아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운동, 골프장 반대운동 등 수 많은 주민운동이 발생하고 있다"(조성윤 1992a). 관광개발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관광지에서의 도시개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조성윤(1992a)은 탑동매립반대운동을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주민운동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력자와 자본가의 결탁에 의해서 추진된 이 사업은 해녀들의 시위와 농성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이목을 끌게 되었고 학생단체, 재야 운동단체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예전 같으면 그대로 묻혀버렸을 각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관광단지로 조성될 계획인 송악산 지역은 중앙정부의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에 대한 반대 운동, 중문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과 관련된 토지주들의 반발, 1990년도의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 등 대부분 토지개발과 관련된 반대 운동들이었다.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표출된 지역주민의 각종 반대운동에서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공업단지, 관광단지, 댐건설로 인한 강제이주, 우리 나라의 전 국토가 국가 주도형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특히 제주관광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주민의 강한 저항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특히 농업사회에서 공업화사회로 전환됨으로써 탈농촌현상이나 공업화로 인한 수질 및 대기오염 등 산업화가 가져다준 국민들의 정서나 비경제적 효과가 비교적 적었던 제주도에서 개발에 따른 저항이 거센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주민의 반대 이유는 주민의사가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관광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발방식에서 개발이익의 외부유출과 분배측면에서 주민의 강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이상철 1995). 즉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이용의 결과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주변의 토지가격도 상승하게 마련이다. 제주도는 도 전체가 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과 지정되지 않는 것과는 지가 상승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한 땅투기 바람은 제주도 전지역이 좋은 대상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광지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많은 지역이 외지인의 소유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제주인의 삶은 "도둑질하지 않고, 빌어먹지 아니했으며, 거주공간을 차단할 필요가 없었다"신행철(1997)는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 신행철(1997)은 이를 "제주인이 협동하며 공동으로 사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인 것이며 공동체적 삶은 외부세력의 횡포와 억압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더욱 굳어졌던 것이다"고 한다. 제주도는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개발을 통한 산업화 과정에서 바로 전통적으로 이어져왔던 '공동체적 삶'이 와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개발 및 관광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인해 토지주들은 막대한 이윤이 발생하였으나 "개발이익이 도시의 소 토지소유자나 중간 이하의 소득층에게는 거의 분배되지 않았고, 주로 외부의 대규모 부동산 자본가들과 일부 도내 상층주민들의 토지 독점을 통해 전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조성윤 1986). 소토지 소유자들은 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 전에 처분하였고 땅투기에 의한 외지인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결과는 외지인에 대한 배타감이 강한 제주도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관광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제주인의 저항의식은 외지인에 대한 배타감, 외지인의 투기화 바람, 개발정보의 유출에 따른 행정당국에 대한 불만 등이 근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주인의 외지인에 대한 배타감은 짧은 관광개발의 역사 속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사람들의 육지에 대한 의식은 양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철인 1986). "제주도 특유의 내집단 의식이 외지인 및 그 문물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으로 나타나면서도 외부에 대한 선망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잠재되어 있다"(박재환 1997). 선망 이외의 대외의존적인 측면도 찾아볼 수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나 바램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모든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특히,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대제주 홀대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감을 표출하는 등 특별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면도 엿볼 수 있다.

개발과정에 보여준 또 다른 측면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 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개발반대의 논리 가운데 항상 중요한 논제는 환경파괴였으며, 우리 나라가 공업화가 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를 '환상의 섬'으로 부르는 것은 자연환경에서, '신비의 섬'으로 부르는 것은 문화적 특질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옛날에는 별로 느껴보지 못했을 자신의 주변환경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제주의 자연환경에 감탄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자연경관의 상품가치를 재확인하면서"(조성윤 1998) 제주의 자연경관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문화적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관광이 우선 일 것이다. 관광은 관광객과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의미하며, 지역주민의 문화, 유산, 전통 등이 상품화되어 판매되는 것이 바로 관광이다. 따라서 관광지역 주민의 삶 그 자체가 관광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은 바로 관광상품으로서 관광객에게 노출되게 마련이다. 관광객을 꾸준하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통이 보존되어야하나 그들로 인해 전통이 상실되는 모순을 담고 있는 것이 관광이다. 섬은 대륙과는 달리 고립된 지역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외부와의 단절된 생활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게 되었다.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독특한 생활모습은 관광자원으로서 상품화의 대상이 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점점 잃게 된다. 제주의 사회변화는 관광 때문이라기보다는 산업화가 가져온 산물이다. 산업화, 자본축적을 위해 관광산업의 발전은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옛날보다 잘 살게되고 현대화된 문화적 삶을 영위하게 되면 자연히 과거의 생활모습은 잃어가게 마련이다. 제주의 사투리, 물허벅, 돌통시, 삼다의 하나인 여자, 특히 해녀의 삶 등에서 옛날의 생활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 이제는 상품화된 연출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다.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박제화된 민속촌이 세워지고, 제주의 민속, 전설 등이 가미된 각종 이벤트는 철저하게 관광 상품화 목적으로 재창출되고 있는 수준이다. 재창출의 필요성은 바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지 '지역문화의 자긍심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조성윤 1998).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과거의 우리 것을 쉽게 잃어버리듯 제주에서도 과거의 우리 것을 쉽게 잃는 것은 제주문화가 아닌 한국문화의 특질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비록 상품화를 위해 '전통의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관광이 가져다준 긍정적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객의 관점에서 비친 제주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관광객이 관광활동 가운데 얻게 되는 정보 및 이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관광지에 대한 이해가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룹관광인 경우 그룹 내에서의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보여지는 정체성은 만들어지는 것(Bruner 1995)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제주관광의 체재일수는 2박3일이다. 짧은 기간동안 지역주민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느끼는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는 주로 문화적 차이나 인적 접촉에서 발생하는 환대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관광산업은 환대산업이기 때문에 관광객에 대한 친절도는 관광지의 개발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18] 제주인은 친절한가에 대한 질문은 단지 주인과 고객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관광객 대상의 설문조사에 나타난 인적서비스의 만족도[19] 즉 종사원의 친절성은 제고되어져야 할 부분이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불만은 오래 전부터 제주관광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개선되어지지 않는 점등은 제주인의 환대정신, 상업적 사교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우리 나라 국민소득의 높은 증대와 더불어 발전해온 제주관광은 1990년대에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관광산업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방향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시작되었고[20] 제주관광 개발방향의 정립을 위한 관광지의 정체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상 대립되었던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제주인

---

18) 관광지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단계적으로 euphoria, apathy, irritation, antagonism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Doxey, G. D. 1976, Heriatage Canada, Vol. 2, 1976, pp. 26-27.

19)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관광종사원의 친절성이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항상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제주도관광협회, 1994, 「관광객만족도 조사」 참조.

20) 보는 관광에서 참여하는 관광, 정적인 관광에서 동적인 관광, 자연관광에서 휴양 및 비즈니스관광(제주도 1998)으로의 구조적 변화 모색은 관광지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은 보존보다는 개발을, 환경적 영향보다는 경제적 효과를 중시하는 경향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현재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의 지정을 통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메가리조트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과거의 개발계획에서 보여준 제주인의 저항이 최근에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에 따른 절차상의 의견수렴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 및 상부구조 (superstructure)[21]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하고 많은 토지수용이 이루어져야하고, 현대화된 관광산업이 들어서게 되면 외부인이 유입되는 등 많은 갈등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그동안 관광지로 발전하면서 많은 갈등을 노정시켰으나 최근 제주의 정체성이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주관광 발전이 정체된 시점에서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제주·제주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내부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제주섬 정체성에 대한 논의

"제주인의 삶을 규정하고 그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요인으로는 도서성, 삼재의 기후조건, 지리적 주변성, 피억압적·피차별적 역사성, 척박한 농토, 영농규모의 협소성 등(신행철 1997)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지리적 조건과 더불어 역사적 경험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역사, 정치, 문학, 여성, 철학 그리고 관광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변화를 인문적 환경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보았다.

제주사에 나타난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 까지는 진취적이고 자율적인 정체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아마도 중앙으로부터의 간섭이 없었기 때문에 대외

21) 하부구조(Infrastructure)는 도로, 항만, 공항, 통신 등을 뜻하며, 상부구조(Superstructure)는 호텔 등 관광객이 관광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의미한다.

관계 역시 독자적으로 추진될 정도로 독립된 체제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고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유배지로 전락되고, 유배인과 마찬가지로 제주인에게도 출륙금지령이 2백년간 지속될 정도로 폐쇄적인 삶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런 역사와 환경적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자립적, 자강적 정체성은 강화되고 생존을 위한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공동체적 삶, 조냥정신,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에 따른 반발 및 저항정신, 외부인에 대한 배타감 그리고 체제에 대한 순응 등으로 설명되는 산업화이전 농업사회 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제주섬의 정체성은 크게 '순응과 반발'의 역사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순응과 반발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기방어적 요인이다. 순응의 정체성은 정치, 경제 및 환경적 요인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고, 반발의 정체성은 수탈과 강요와 같은 억눌림에서 나타난 저항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조냥정신, 수눌음정신, 자립정신, 평등의식, 이어도정신, 공동체의식 그리고 제주 해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근면성과 강인함은 순응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특히,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화해와 용서'의 정체성은 순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민란 및 외지인·외지자본에 대한 배타감, 지역개발에 대한 반대, 행정관리에 대한 반발 등은 반발의 정체성으로 해석된다.

이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한 표출은 제주해녀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주도가 여자가 많은 섬으로 알려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제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육지와 비교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해녀를 두고 근면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강한 정신을 갖고 있으며, 또한 억세면서 상냥하지 못하다는 표현은 제주의 정체성에서 순응과 반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 해녀는 조선시대부터 일본 식민지 시대까지 중앙권력에 착취당하는 가련하고, 비천한 존재였다. 비천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여건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살아가기도 힘든 여건에서 관리 특히 중앙권력의 수탈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겨나고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저항정신과 외지인에 대한 배타감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녀의 역사는 바로 제주의 역사이며, 해녀정신은 바로 제주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주의 과거사에 나타난 많은 민란에서 해녀는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었고 관광개발을 통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반대운동의 시작 또한 해녀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다만 해녀에 대해 제주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4·3에서는 특별히 강조되어 말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4·3이후 오늘날까지 생존 또는 삶에 대한 착취나 수탈과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에 해녀는 근면, 저항 등의 제주정신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이다. 한편 산업화 이후 제주도가 우리 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발전하였으나 상업성이나 환대정신이 부족한 측면도 해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 억세고 상냥하지 못하게 비춰진 모습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와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져다준다. 특히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통제에서 자율로, 고립에서 개방으로, 그리고 산업부문에서의 자립에서 지역간 역할분담의 체제로의 변화 및 국내 경제발전이 가져다준 물질적 풍요는 조냥정신 및 공동체 의식 등으로 표현된 정체성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더불어 관광상품 등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전통의 재창조'를 통하여 제주의 전통성을 확인하면서, '제주다운 것'을 재발견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졌다. 나아가서 보다 긍정적인 제주·제주인의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즉 적극적으로 정체성 변화를 추진하려는 힘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V. 결 론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발전하게된 이유도 바로 육지와는 다른 모습을 지녀왔기에 가능한 것이다. 사람들은 내적·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마련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정체성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정체성도 있

을 것이다. 또한 정체성에 대한 의미 부여에 있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다르게 부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역사·정치·철학·여성(해녀)·문학 그리고 관광의 시각에서 제주섬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보편적인 특수성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살펴본 제주섬의 정체성은 접근이 이루어진 각 분야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었으나 결국 정체성은 주어진 여건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으로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기존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제주섬의 경우 '순응과 반발'의 다양한 표출이 가장 지배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었다.

물론 '순응과 반발'의 다양한 표출이 제주섬 정체성 변화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글에서 논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정치·문학·여성·철학·관광부문에서 시대적 맥락에 따라 여러 형태로 표출된 정체성의 줄기는 '순응과 반발'의 변모로 볼 수 있었다.

'순응과 반발'의 정체성을 제주인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 글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 해도 특히 제주인에게서 강하게 표출되는 것이라면 제주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제주 사회는 관광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또 다른 모습의 '순응과 반발'을 찾아볼 수 있으며, 최근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대원
1973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89 "잠수의 내력과 출가사", 『제주도』 86: 74-85.
강병찬
1977 "여성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미간행).
고영기
1995 『해녀의 겨울』 (시집), 서울: 시문학사.
고창석·박찬식
1998 "제주사를 통해서 본 21세기 제주 비전", 『21세기 모두를 위한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김광렬
1998 "그대는 살아 있다", 『바람처럼 까마귀처럼』, p. 67, 서울: 실천문학.
김기협
1997 "섬의 운명, 변방인가 요충인가", 『제주도와 외세』, 제주4·3연구소 제3기 역사교실 요지문, 제주4·3연구소.
김석준
1997 "제주지역의 선거(1948~1992): 개괄적 검토와 재해석" 『탐라문화』 제 17호.
김수열
1998 "한아름 들꽃으로 살아", 『바람처럼 까마귀처럼』, p. 106, 서울: 실천문학.
김순남
1998 "바람으로 오는 어떤 神話", 『바람처럼 까마귀처럼』, p. 5, 서울: 실천문학.
김영돈
1994 "제주해녀", 『제주의 민속 2』, 제주도.

김은석
1998 "'향토사를 위한 변', 그리고 그 전망", 제주학회 제64차 연구발표회 요지문
김태옥 외
1979 "제주인, 제주도 정신", 『제주도』 75:34-81.
김항원
1990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김현돈
1997 "제주문화의 재창조", 『제주리뷰』, 제3호,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박재환
1977 "인간상호작용에 관한 제주도민의 사회의식", 『제주대학 논문집』 9.
박찬식
1996 "사회운동",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
부춘화
1985 "삶의 순수한 투쟁", 『월간관광제주』 6: 84-88.
송성대
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 제주문화.
송성대 외
1998 "가을문예아카데미 강좌-제주정신이란 무엇인가", 민예총 제주도지회.
신행철
1997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제주도 연구』 제 14집, 제주학회.
안미정
1998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미간행).
유철인
1996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탐라문화』 제5집,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소.

이문웅

1997 "재일 제주인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조직",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심포지움.

이상철

1995,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제주도연구, 제12집, 제주도연구회.

1987, "제주사회변동론 서설-제주도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8권 제3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이창기

1982 "제주도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인구보건논집』 2:28-50.

이형상

1704 "탐라계록초", 『속탐라록』, 1994. (재수록) 제주문화방송, pp. 370-432.

정근식

1997 "지역 정체성과 도시 상징 연구를 위하여",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지역사회 연구방법의 모색』, pp 117-147, 전남대 출판부.

제주도

1993 『제주도지』.

1996a 『제주의 해녀』.

1996b 『제주해녀 항일투쟁 실록』, 제주해녀 항일투쟁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998 『2010년 제주 경제발전 비젼과 전략』, 한국경제연구원·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제주도·제주도관광협회

1994 『관광객만족도조사』.

제주대학 박물관

1996 『제주해녀 항일투쟁 기념사업 기본계획(안)』.

제주 4·3사건 제 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1998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조성윤
1986 "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 『사회학연구』 넷째책.
1992a "개발과 지역주민운동 : 제주시 탑동 개발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제 56호.
1992b "제주의 관광개발과 주민의 각종 반대운동", 『제주발전연구』 제 4호, 제주발전연구소.
1997 "제주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심포지움-제주인의 문화정체성을 찾아서", 제주문화포럼 발표.
1998 "제주인의 문화 정체성", 세계섬학술회의 보고서, 제주발전연구원.
조혜정
1988 "발전과 저발전: 제주 해녀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pp. 263-331, 문학과 지성사.
주채혁
1998 "'제주도의 칭기스칸 후예들에 관하여' : 토론문," 『탐라와 몽골, 교류의 역사와 문화』(1998년도 탐라문화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 요지문).
후지나가 타게시
1990 "1932년 제주도 해녀투쟁", 『4·3장정』, 4·3연구소.
현기영
1989 『바람타는 섬』, (소설) 창작과 비평사.
현안식
1998 "민오름에 올라", 『바람처럼 까마귀처럼』, p. 24, 서울: 실천문학.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Bruner, Edward
1955 "The Ethnographer/Tourist in Indonesia." P. 230 in International Tourism: Identity and Change, edited by Lanfant, Allock and Bruner.
Calhoun, Craig
1994 "Social Theor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pp. 9-36 in *Social*

Theor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edited by Calhoun, Oxford: Blackwell.

Chatterjee, Partha

1989 "Colonialism, Nationalism, Colonialized Women: the Contest in India", *American Athnologist* 16: 622-633.

Deschamps, Jean-Claude and Thierry Devos

1998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dentity and Personal Identy", *Social Identity*, London: Sage.

Friedman, Jonathan

1992 "Myth, History, and Political Identity." *Cultural Anthropology*. 7: 194-210.

Goldstein Jonah and Jeremy Rayner

1994 "The Politics of Identity in late Modern Society." *Theory and Politics* 23: 367-384.

Hobsbawm, Eric

1983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s." pp. 1-14 in *The Invention of Tradition*, edited by Eric Hobsbawm and T. Rang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ch, Z

1993 "Symbols, Conflict, and Identity", New York: SUNY Press.

Pitana, I Gde

1998 "Global Process and Struggle for Identity: A Note on Cultural Tourism in Bali", Journal of Island Studies 1: 117-126.

A Comparative Study on Change in Cheju Island Identities

Choi, Byoung-Kil/Kwon, Gui-Sook/Kang, Sang-Deok/
Kim, Hyon-Don/Han, Seok-gee/Park, Chan-Sik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formation, maintenance, and the changes of Cheju people's identities. It bases on the analysis of social relations with 'the others' in Cheju history. This study take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at is, the identity changes are studied from the different field such as history, politics, women, tourism, philosophy, and literature, and discussed together to draw conclusion.

The Cheju peoples, peripheral to the center of korean mainland, has been suffered from the conflicts between the negative and positive images of themselves. For Cheju women, the conflict of images between the weak and the strong has shown very extremely. The processes of adaptation and resistance in relation to 'the others' are well represented in Cheju literature. Recently the promotion of tourism industry has transformed the social relations as well as cultural images of Cheju Island. The Cheju people begin to establish the positive image of themselves in terms of political identity.